



## 오인회 소식

2019년 9월 (제96호)

권두언(卷頭言)

### 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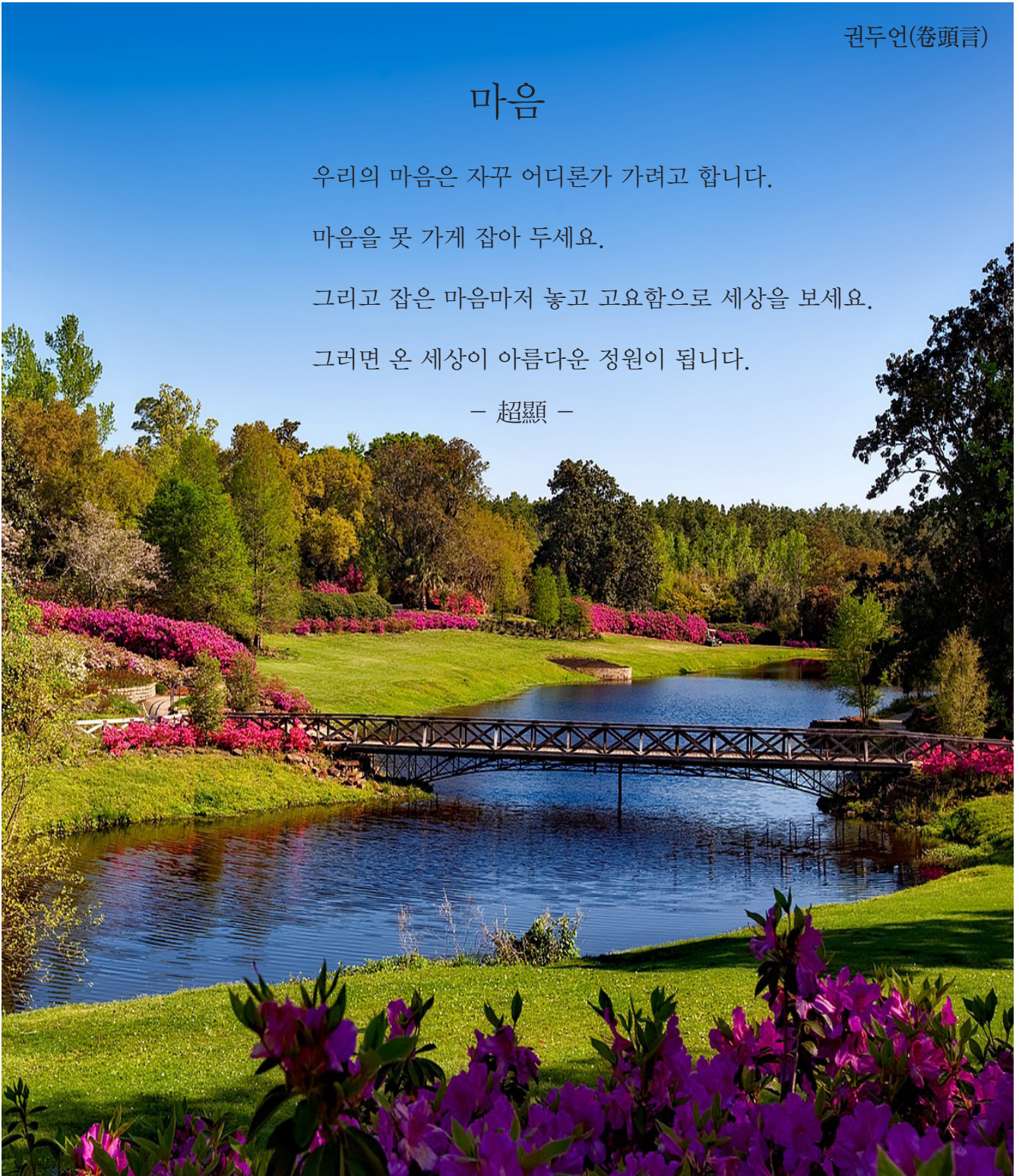
우리의 마음은 자꾸 어디론가 가려고 합니다.

마음을 못 가게 잡아 두세요.

그리고 잡은 마음마저 놓고 고요함으로 세상을 보세요.

그러면 온 세상이 아름다운 정원이 됩니다.

- 超顯 -



### \* 홀로스 공동체 후원 현황 \*

홀로스 공동체의 다양한 활동들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후원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 홀로스 운영 후원 내역

○ 일반후원

8월 27일 장경옥 2만원 / 9월 9일 류창형 3만원 / 9월 10일 여해 10만원 / 9월 10일 선호 1만원 / 9월 20일 여행 1만원 / 9월 27일 장경옥 2만원

● 공동체학교 후원 내역

○ 일반후원 (기보 100만원, 연주 60만원, 바람 300만원, 지원 100만원, 자명 230만원, 노래 1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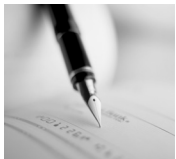
○ 월정기후원 (매월 20만원 / 별칭 뒤에 숫자는 월 후원 횟수입니다)

- 일반 (익명A24, 익명B24, 능주24, 슬내음21, 무유22, 고을33, 서원24, 여몽25, 원님33, 기보24, 썬이24, 허유24, 거위24)
- 기타 (가온33, 구당33, 자현24)

<공동체학교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2-135-404042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 안내 (대승 上, 中권 출판 완료, 下권 출판비 450만원 중 현재 165만원)

<번뇌즉보리 총서 후원계좌> 농협 351-0680-1315-13 이원규 / 문의 : 02-747-2261



## 찾는다는 것 자체가 하나의 일어난 현상이다

### 이안 인터뷰 4

공공기관의 차장으로 일하는 이안 님은 20대 초반 보이지 않는 에너지의 세계와 여러 환영들이 눈에 보여지면서 ‘실재’와 ‘비실재’ 사이에서 많은 혼란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후 ‘실재하는 것은 무엇이며, 근원적인 인간의 행복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마음에 품고 인간의 몸과 마음에 관한 여러 프로그램들과 수행을 계속해 오면서 끊임없이 물음에 대한 답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던 중 2018년 10월 깨어있기 기초과정에 참석하여 마음에 큰 울림을 경험하고 이후 깨어있기 심화과정, 오인회, 마스터과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마음을 탐구하던 중 문득 찾아오던 마음이 일어나는 그 자리를 알아차리게 되었습니다. 이후 찾는 걸음이 저절로 멈추어지고 깨어있기에서 말하고 있는 ‘나’로부터 자유로워지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유연재(悠然在)라고 이름 지은 집에 살면서 바쁜 일상속에서 유유자적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난 호에 이어서)

허: 깨어있기 마스터 과정을 듣고 있다고 하셨는데 언제부터 하시게 된 건가요? 마스터 과정에서는 어떤 내용을 다루나요?

이: 올 3월이었나 처음으로 서울에 모여서 같이 수업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스터 과정에서는 깨어있기 기초, 심화를 가보면 갈 때마다 다른 수업을 하시잖아요. 물론 맥락은 같지만 모인 사람들의 특성이나 이해도, 관심도에 따라서 선생님이 건너뛰는 연습도 있고 또는 이 연습의 의미를 구체적으로 설명하거나 이해시키지 않고 연습만 바로 하시는 부분도 있어요. 마스터 과정에서는 깨어있기 책에 있는 모든 과정들을 세밀하고 섬세하게 연습을 하고 연습한 경험이나 통찰을 선생님과 나누면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향후 공부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자세히 주고받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수업을 하고, 여유있는 분들은 함양에 내려가서 깨어있기 수업을 같이 하기도 하구요.

**허: 그렇군요. 앞에서 말씀하신 경험을 통해 본인이 20대부터 품어왔던 숙제랄까 의문들이 다 해소가 되셨나요?**

이: 뭔가 해소된 느낌이 있구요,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그런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찾는 걸음이 멈춰졌다, 찾는 마음이 멈춰졌다 그 비슷한 생각인 것 같습니다. ‘찾는다’는 것 자체가 ‘일어난 생각’이고 여기 무엇이 없다, 저기 무엇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 구별이나 분별이 만들어낸 하나의 생각이라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딘가 무엇을 찾아서 가는 일은 아마도 예전에는 그렇게 많이 했었지만, 더 이상은 없겠다하는 앎이나 믿음이 있습니다.

**허: 이안님은 지금까지 공부하신 현재까지, 본인이 부족한 부분이나 더 집중해야 할 부분이 있으신가요?**

이: 부족하다는 생각보다는 이걸 좀 더 하면 좋지 않을까, 선생님과 마스터과정을 하면서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이나 과정을 설명하려면 좀 더 표현하는 부분이라든지 의식화하는 부분이 섬세해지면 좋지 않을까 합니다. 향후에 혹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말로 표현하지 못하고 느낌으로 전달하지 못하면 스스로만 알고 있는 것이 되어버리니까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표현하는 부분을 배웠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은 올라옵니다.

**허: 믿음에 대한 얘기를 더 해주세요. 이안님이 젊으신데 언젠가는 나이가 들어서 죽겠구나, 그런 생각은 하세요? 내가 나이가 먹는구나! 그런 생각.**

이: 몸이 없어지겠구나, 그런 생각은 당연히 하죠. 나이가 먹는구나 라기보다는, 나이라는 것도 사람이 만들어낸 개념이긴 한데 이 몸의 기능이 변하겠구나! 그런 생각은 듭니다.

**허: 시간이 흘러간다는 것도?**

이: 시간이 흘러간다는 건, 시간과 공간이 있다는 것이 기준을 삼아서 생기는 거거든요. 이것이 기준이구나 하면 저기까지 갈 때 저 공간으로 갈 때 이만큼의 시간이 걸리겠구나 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건데, 예를 한 번 들어볼게요. 일층에서 십층을 올라간다고 하면,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일층에서 십층으로 간다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시간도 걸리고, 그런데 제가 멀리서 보고 있으면 여기만 계속 있는 거예요. 개인이 일층에서 십층으로 가는 거지. 이 공간에는 현재만 있는 건데 시간과 공간이나 운동이라는 건 어떤 개인의 이동을 설명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개념이 아닌가...

**허: 움직임이라는 것은 본래 있는 건가요? 일층에서 십층까지 가는 움직임이 실제로 존재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생기는 건지.**

이: ‘내’가 있다고 믿으면 마음의 분별에 의해서 움직임이 생기는 거죠. 내가 있기 때문에 움직일 공간이 생깁니다. 무엇이 시간이 생기는 거고, 일층과 십층이라는 분별이 생기는 거고.

**허: 결국 모든 건 마음의 분별 때문에 생기는 걸까요? 공간적으로도 그렇지만 시간적으로도 내가 나이를 먹는다는 것도 사실은 마음의 기능이고 분별작용이라는 거네요.**

이: 마음의 힘, 분별, 마음의 기능 때문에 생기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나라는 것이 어떤 고정된 무엇이라고 여길 때, 변해가는 내가 나이를 먹는구나 하는 기준이 생기거든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허: ‘나라는 실체가 있어야지 그것이 늙고 낡아가는 과정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가장 기본적인 전제라고 할 수 있겠네요. 시간이 흘러간다는지 변화가 생긴다는 건 마음의 분별 작용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 마음의 분별 작용이죠. 그것을 당연히 사실이라고 믿어왔고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그것이 이 지구의 믿음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깨어나신 분들이 그렇지 않을 수 있다는 걸 설명해주고 그러지 않을 수 있는 과정을 밝혀주는 것들이 이런 공부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허: 요즘은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세요? 관심이 없으신가요?**

이: 그렇지는 않고, 선생님과 하고 있는 마스터 과정이 재미가 있어요. 과정에 오신 분들 만나는 것도 재미있는 느낌이 일어나거든요. 그 느낌을 느끼는 것도 재밌고 그 과정을 충실히 했으면 좋겠고, 회사에 바쁜 일이

있어서 참여를 못할때도 있는데 마무리되면 우선 주어지는 대로 열심히 해봐야지 생각합니다.

**허: 예전에 우현님이 진행하던 영어 강좌에도 참여하셨다고 들었는데 어떤 계기로 듣게 되셨나요?**

이: 영어 강좌는 아니고 책을 잘 보는 수업, 원서는 아니고 한글 책을 보는 수업을 들었는데 승진 시험을 앞두고 있어서 어떻게 하면 책을 잘 볼 수 있을까 생각하다 우연히 미내사에서 하던 공내아뇌 수업을 들었어요. 하루짜리 수업을 들었는데 흥미롭고 재밌었어요. 꼭 공부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마음의 작용이나 과정을 하시는데 너무 재밌었어요. 이건 뭔가 있을 수 있겠다 생각했고 의심이 많은 성격이어서 한 번 더 수업을 들었어요.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수업을 3개월동안 들었어요. 미내사에서 한 건 아니고 우현 선생님 학원에서 했는데 재밌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눈은 마음이 책을 보는 속도를 따라가지 못해서, 보통은 눈을 통해서 한 글자 한 글자 책을 읽는데 순서대로 책을 보는데, 공내아뇌 수업을 하고 나서 공부가 잘 될 때는 책을 읽을 때 눈이 오히려 마음보다 늦어서, 모든 장면이 한 번에 들어오는데 그 경험이 가장 신기한 경험이었어요.

**허: 승진시험은 합격하셨나요?**

이: 네, 우수한 성적으로 합격했죠. 수업을 하는데 선생님이 책 잘 읽는 얘기보다 다른 걸 더 많이 말씀하셔서 뭔가 더 있는데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나중에 알게 됐는데 관성 넘어가기 책 뒤에 깨어남 체험을 하신 분이 우현님이시더라고요. 그때는 실명을 쓰셔서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놀랐어요. 아내가 책보는 수업을 듣고 책을 재밌게 보니까, 나라는 것에서 힘이 빠지는 순간, 내가 책을 본다라고 하면 나 쪽에 힘이 많이 들어요. 책을 이해하려고 하니, 나에서 힘을 빼는 수업을 책보면서 했던 거 같아요. 주의를 자연스럽게 보내는 연습을 한 거 같아요.

**허: 공내아뇌 핵심은 나에서 힘을 빼는 것인가요?**

이: 공내아뇌 핵심은 이름 안에 들어있어요. 공부하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 나라는 어떤 것이 하는 것이 아니라 뇌가 하는 것이다가 핵심입니다. 나에 힘을 쓰기 시작하면 나에 끌려 다니기 시작하죠. 책을 볼 때 일어나는 생각, 친구 만나야지, 밥 먹어야지 그런 생각에 끌려 다니는데 공내아뇌에서는 이렇게 끌려다니는 어떤 것들에서 힘을 빼는 연습을 많이 해요. 나에서 힘이 빠지면 주의를 자연스럽게 책으로 흐르게 되어 있거든요. 책에 주의만 잘 주고 있으면 되죠. 우리가 책 볼 때도 집중한다고 하지만 많은 생각에 끌려다녀요. 저녁 뭐 먹지, 그런 생각들. 그것에 주의를 보내지 않는 거죠. 자연스럽게 힘을 빼고 책에 주의를 더 많이 보내는 거죠. 그러면서 재밌는 경험을 하게 됐고 아내에게 추천해서 영어 수업을 1년 정도 했을 거예요. 영어 수업을 갖다오면 선생님하고 대화한 얘기를 더 많이 하더라고요. 선생님하고 아내하고 초창기에는 영어 수업을 쫓 했지만, 영어 실력이 좀 나아지고 나니까 마음에 관한 얘기를 더 많이 나눴던 거 같아요. 아내가 마음에 관한 얘기 나눴던 걸 메모해 와서 저녁에 나눠줬거든요.

**허: 아내도 이 공부를 하고 계신가요?**

이: 지금 공부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은 갖고 있고, 공부를 하는데 아내가 많은 도움을 줬어요. 예를 들면 제가 어떤 생각이나 감정에 빠져서 생각을 하면 아내가 물었어요. "그 생각은 누구 거야?" 아, 내가 하는 게 ... 아니지. 나라는 주체가 있어서 생각을 하는 게 아니지. 그 순간 힘이 빠지거든요.

**허: "생각은 누구 거야"라는 질문을 들었을 때 무엇을 알게 되셨나요?**

이: 질문을 듣는 순간 생각의 주인을 찾는 거죠. 찾아보면 주인이 따로 없거든요. 이건 내가 하는 게 아니지. 생각이나 감정은 어떤 상황에서 일어나는 거지. 내 생각이라고 강하게 믿어왔던 게 아내의 지속적인 질문을 통해서 힘이 많이 빠졌던 거 같아요.

**허: 아내분은 이런 과정을 공내아뇌 강좌를 들으면서 알게 되신 건가요?**

이: 아내도 오래전부터 이런 비슷한 공부를 쫓 해왔었거든요. 계속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둘이 대화의 주제도 이런 것들이 많아요. 아내 덕분에 공부에 많은 도움을 얻었어요. '지금 뭐하고 있어, 지금의 느낌은?' 항상 마음이나 탐구를 놓치지 않게 해준 것 같아요.

**허: 이안님이 더 하고 싶은 얘기 나눠주세요.**

이: 공부를 하시는 분들한테 두 가지 정도 얘기하고 싶은데요. 하나는 깨어있기 참여했거나 와 닿지 않는 분들이 책을 반복해서 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합니다. 책을 반복해서 본다는 건 용어의 정의나 이런 느낌을 알고 가면 수업을 들을 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요. 물론 아무것도 모르고 가도 되지만 큰 그림을 그리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수업을 다녀온 분들이 내가 이해한 게 맞나, 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 번 수업에 참여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한 번 수업을 듣는다고 해서 다 이해되지도 않고 나의 기준으로 수업을 재단하고 이해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수업을 들으면 훨씬 더 명료하고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심화과정까지 하신 분들은 오인회 최근 가보면 몇 분 안 계신데 오인회 모임을 통해서 자신의 상태를 점검을 받고 선생님의 피드백을 받으면 알 수 있는 것이 많아진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제가 겪었던 함정들에 빠지지 않고 공부에서 안내자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허: 봉천동에서 직접 들으셨나요?**

이: 현재 오인회는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허: 아까 책, 《관성을 넘어가기》《대승-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읽어보셨다고 하셨잖아요. 읽어보신 소감은 어떠세요?**

이: 대승기신론은 상, 중 두 권을 본 것 같은데요. 처음 놀라웠고요. 이것을 이렇게 정리하고 설명하는 것이 가능할까 하고 놀랐습니다. 마음의 과정을 대승기신론을 통해서 설명하시는 건데 그런 것들이 재밌고 신선했어요. 치밀한 분별을 하신 선생님의 배경지식, 설명할 수 있는 힘 그런 것들이 놀랍고 재밌게 느껴졌어요.

**허: 책을 읽으시면서 마음에 와 닿다거나 새로운 통찰을 얻으신 게 있으세요:**

이: 새롭게 와 닿은 것도 많았고 중간 중간 통찰도 많았는데 기록을 하지는 않아서 기억이 나는 건 없습니다. 상, 중이 방대한 분량이다 보니까, 책을 보는 순간에는 재미있게 봤는데 지금 기억나는 건 없어요.

**허: 책이 어렵지는 않던가요?**

이: 이해가 어렵지는 않았어요. 공부를 하면서 다시 봤더니 더 재밌었어요. 깨어있기 책도 가기 전에 50번 정도 보고, 갔다 와서도 그만큼 봤던 거 같아요. 백 번 이상은 본 것 같아요. 재미있었다기보다는 갔다 와서 50번을 넘어가고부터는 저자의 마음,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하니까 이걸 설명하려고 과정을 이렇게 그려놨구나, 이런 것들이 와서 훨씬 재밌었어요. 지금도 가방에 넣어서 갖고 다니는데 이걸 어떻게 설명했지 자주 찾아봐요.

**허: 지금 이안님은 충분히 깨어있기 내용을 알고 계시고 안내할 수 있겠네요.**

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선생님 설명하는 만큼 자신도 없고, 다양한 경험들을 풀어서 설명하려면 그만큼의 경험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아직은 그만큼의 설명을 한 자신은 없죠. 어떤 상태나 상황을 설명하는 건 가능하지만 지금처럼 인터뷰를 할 수는 있지만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 설명할 자신이 없어요. 저는 종교가 없는데 종교인들이 그들의 언어로 질문한다면 그들의 마음이나 느낌을 이해할 순 없지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깨어있기 수업에서 선생님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설명을 무척 잘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을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데이터들이 많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허: 앞으로 이안님의 과제라면 그런 데이터를 쌓는 것일 수도 있겠네요.**

이: 과제라는 건 특별히 모르겠고 길게 살지는 않았지만, 살아보니까 삶의 길이 있는 거 같아요. 예전에도 그랬지만 내가 뜻한다고, 의지가 있다고 의지대로 삶이 살아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깨어있기로 가게 된 것도 지금 인터뷰를 하고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뭔가를 정하고 꼭 해 봐야겠다 그런 것은 없는 것 같아요. 데이터를 쌓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하는 거지 제가 데이터를 쌓았다고 해서 나중에 사람을 가르치거나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그 일을 하게 되겠죠.

**허: 아직은 특별히 정한 목적이나 목표는 없으신 거네요.**

이: 아직은 특별히 정한 건 없습니다. 정했다고 해서 그렇게 된 적도 없는 것 같고요.

**하: 다른 강좌는 들어보신 것 없으세요?**

이: 예전에 몸에 관한 공부도 관심이 있었는데 물박사, 소금 수업이 신선하고 재밌었어요. 이 믿음이 허구일 수 있구나. 소금이 몸에 나쁘다, 건강에 해롭다 그런 믿음이 사실이 아닐 수 있구나. 직장 동료를 보면서 많이 느꼈는데 고정된 해로움이나 이로움이 있는 게 아니구나.

**하: 고정된 해로움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대상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 어떤 식으로 섭취하느냐 그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건데 소금은 나쁘다, 싱겁게 먹어야 한다, 싱겁게도 기준이 없거든요. 믿음에 많이 길들여져 있구나, 직장동료들과 밥 먹으면 소금을 안 쳐요. 소금 안치냐고 물어보면 충분히 짜다고 하거든요. 자신의 믿음을 강하게 믿는 거죠. 수업 들으면서 재밌었어요.

**하: 결국 깨어있기 강좌 내용하고도 연결될 수 있고 일맥상통하는 거네요.**

이: 건강에 한해서만 보면 그렇긴 한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깨어있기와 다르지 않죠.

**하: 아까 일종의 통찰 경험을 말씀해주셨는데, 나와 대상, 관찰자가 계속 분열되어 생성되는 과정을 나눠주셨는데, 그 통찰이 일어났을 때의 느낌, 기분이 어떠셨어요?**

이: 두 가지 느낌, 아, 이거구나 하는 안도의 한숨. 또 하나는 이거였어? 약간의 허탈함보다는 이거하려고 내가 이렇게 돌아다녔나라는 마음...

**하: 지금은 어떠세요?**

이: 지금은 그것에 대한 느낌이 없어요. 좋거나 나쁘거나 하지는 않고 편안해졌구나, 롤러코스터 속에 있지는 않아요. 한 번씩 찾아보는 것 같아요. 지금도 있나. 느꼈던, 근본 혹은 배경 그런 게 지금도 있나 질문하면서 찾아보는 것 같아요.

**하: 근본이나 배경이 함께 있는지 확인하게 되는 거죠?**

이: 그렇게 하는 이유는 여전히 약간 어떤 감정이라든지, 생각은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주의나 초점을 두지는 않지만 강렬하게 느껴지는 감정적 에너지에는 휩싸일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정신을 차리고 지금 뭐하고 있지, 질문을 던지고 그것이 일어난 것이지, 라는 것에 초점을 보내는 거죠. 그것이 지금도 있나, 함께 있나, 질문을 통해서 빠져나오는 것 같아요.

**하: 감정적 에너지에서 빠져나오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하시는 것 같네요.**

이: 방법, 방편이죠. 그렇게 어떤 고리를 걸어주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감정 에너지는 큰 에너지로 오기 때문에 이 습관을, 몸이 가진 경험된 습관을 한 번에 빠져나오기는 어려워서 탁자를 치는 순간 알아차린다고든지 또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알아차리는 방법을 쓰는 것 같아요.

**하: 그것이 관성을 다루는 방법인가요?**

이: 그것을 관성이라고 한다면 관성인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왔었던 것이기 때문에 알아차렸다고 해도 몸이 가진 습관들이나 환경 속에서 일어나는 감정들이 눈녹듯이 사라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가 깨어남의 경험이나 책을 통해서 환상을 기대하거나 또는 어떤 상태에 대한 집착을, 전 해왔거든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될거야. 그래서 그 두 가지 감정이 동시에 들었던 거 같아요. 어, 이거야? 와 이거였어! 그 감정이 동시에 들었어요. 그 경험 이후에도 감정이 올라오고 증폭이 느껴지니까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기대와 환상, 감정이 짙하고 없어지고.

**하: 마음 공부의 실상이랄까, 실체를 좀 더 있는 그대로 맨 모습으로 느끼신다는 거죠.**

이: 이 공부를 시작할 때 깨어남 이후의 신비함, 어떤 특정한 상태, 사랑만 충만해있고 그런 상태를 고집하거나 느끼려고 했었는데 지복만 있는 상태라든지. 이것을 한 번 보고 나면 어떤 상태는 아니거든요. 고정된 무엇도 아니고, 그런 착각 속에 빠져있었구나, 책에서 말한 것들에 속을 수 있겠구나, 그래서 말에 속는구나, 말에 속고 마음에 속고 생각에 속는구나. 물론 이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그런 욕망이 있어야 에너지가 생기겠지만,

힘이 필요하니까 필요하지만 궁극적으로 이걸 목적으로 두지는 않아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허: 《대승-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에 그런 것이 잘 설명이 되어있죠?

이: 그런 구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허: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세요.

이: 제가 설명을 잘 했을지 모르지만 제 말을 듣거나 글을 읽으실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준비를 했다고 해도 다른 말이 나왔을 것 같지만 상황에 맞게 적당한 말이 나왔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허: 오랜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감사합니다. (끝)

## 대승기신론(79) - 2013년 9월 17일 강의 월인(越因)

是故一切法從本已來. 離言說相, 離名字相, 離心緣相, 畢竟平等. 無有變異, 不可破壞.  
시고일체법종본이래. 리언설상, 리명자상, 리심연상, 필경평등. 무유변이. 불가파괴.

이러한 이유로 일체의 법은 본래부터 언설상(言說相)을 떠나고, 명자상(名字相)을 떠나고, 심연상(心緣相)을 떠나서 결국 평등하게 되고, 변이(變異)가 없으며 파괴할 수도 없다.

심연상(心緣相)은 마음의 인연에 의해서 생기는 상(相)인데 우리는 그것에 '감지'라고 이름붙였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나타난 컵의 둥그런 느낌은 둥그렇지 않은 네모난 느낌이나 직선의 느낌을 기준으로 삼았을 때 것처럼 둥그렇게 느껴집니다. 이렇게 의타성에 기반한 것이 심연상입니다. 마음의 인연에 의해서 상(相)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는 감지(感知)입니다. 그런 심연상마저도 떠나면 필경에는 평등하여 변이가 없으니 파괴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파괴할 수 없을까요? 컵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컵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으므로 파괴할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감지를 떠나 감각으로 들어가면 더 이상 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감각세계에서는 컵을 파괴할 수 없어요. 존재하지 않는 것을 어떻게 파괴하겠습니까? 노끈을 뱀이라고 착각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뱀을 없애거나 파괴할 수 있을까요? 뱀이라는 것은 애초에 없었습니다. 그 다음 우리가 노끈을 파괴할 수 있을까요? 노끈도 원래 없는 것이기 때문에 파괴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그냥 삼일 뿐이에요. 삼을 엮어서 꼬아 만든 것이 노끈이니까 노끈을 없앨 수 없습니다. 노끈을 여러 번 자르고 잘라도 원래 노끈은 없고 삼만 있을 뿐이므로 노끈을 파괴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삼이라는 것은 있을까요? 그것 역시 마찬가지겠지요. 모두가 마음의 분별에 의해 생겨난 것일뿐입니다. '필경에는 평등하다'는 말은 본질적으로는 증감이나 차이가 없다는 말입니다.

주체와 대상을 나누는 전식(轉識), 대상을 여러 가지로 분별하는 현식(現識), 분별된 대상에 좋고 나쁨이 붙는 지식(智識) 등과 같은 마음의 상태에 의해서 구별될 뿐, 본래는 구별되는 일체의 현상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분리하고 나누는 마음의 작용이 없으면 일체의 현상이 없으며, '없다'는 것마저도 떠나게 되는데 이것을 변계소집상의 무상(無常)함이라 합니다. 변계소집은 왜 무상(無常)할까요? 저 탁자의 둥그런 느낌인 감지는 원래부터 있던 것이 아니라, 둥글지 않은 느낌이 이미 내 마음의 배경으로 있는 상태에서 둥근 것이 나타났을 때 그것을 둥글다고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배경인 '각진 느낌'이 사라진다면 이 탁자도 더 이상 '둥글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냥 감각적 기준에 의해 구별될 뿐입니다. 그것이 바로 변계소집의 무상함입니다. 즉 둥근 탁자가 둥글게 느껴지는 것은 네모난 것들 때문이고, 네모난 것이 네모나게 느껴지는 것도 둥근 것에 대비하여 그렇게 느껴지는 것이니, 감지라는 것은 결국 다른 것들과의 '관계에서 느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다른 것들과의 관계가 없다면 어떤 '느낌'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이 바로 변계소집상의 무상성입니다.

저 밖의 사물들은 개별체가 따로 없는 불이(不二)의 일체일 뿐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특정 사물에 대한 흔적이 쌓이면 그 사물을 보는 순간 마음은 그 사물의 모양과 질로 얼어붙게 됩니다. 마음은 물과 같아서 그 모양으로 얼어붙으면 형태를 이루고 어떤 느낌이 생겨나는데, 그 배경에는 또 다른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비되어 느껴지게 됩니다. 빙산이 녹았다가 얼기를 반복하지만 늘 같은 패턴인 것처럼 하나의 사물에 대해 마음이 응결되는 모습이 같기 때문에 그런 감지를 지니게 됩니다. 그러나 그런 감지가 생긴 것과 그런 느낌이 드는 것은 다른 얘기입니다. 컵을 가지고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 컵을 자주 보면 마음에 이 컵의 느낌이 형성됩니다. 이 컵의 모양으로 마음이 얼어붙는 거예요. 그렇게 느낌이 형성되어도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는 못합니다. 그냥 구별만 할 뿐인 이 상태가 '감각'입니다. 그런데 마음에 둥그런 원도 경험되고 각진 사각형도 경험되면 두 가지를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각형을 배경으로 원형을 떠올리면 드디어 컵의 둥근 느낌이 구별되어 느껴지는데 이것이 '감지'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감지의 세계는 '의타적(依他的)'이라고 말합니다. 이 컵을 '감각'으로 보면 마음에는 어떤 느낌도 떠오르지 않습니다. 마음의 상(相)이 떠오르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어떤 '느낌'이 일어났다는 것은 항상 의타적이라는 의미인데, 그 의타적인 느낌을 제거해버리면 감각기관이 '구별'은 하지만 '분별되는 느낌'은 없습니다. 느낌이 있으려면 감지가 형성되어야 하고, 감지는 의타적이고 상대적이어서 보완적인 다른 것들을 배경으로 삼을 때만 느껴집니다. 네모난 탁자가 각지게 느껴지고 둥근 탁자가 둥글게 느껴지는 것은 그 배경에 다른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각진 것의 배경에는 둥근 것이 있고, 둥근 것의 배경에는 각진 것이 있을 때만 그렇게 느껴집니다. 각진 느낌, 둥근 느낌은 사물과 배경간의 관계에서 오는 제 3의 현상입니다. 두 손바닥이 마주쳐서 내는 소리와 같은 거예요. 이러한 느낌이 변계소집상인데 그것은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고 관계에 의해 의타적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무상(無常)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눈병이 난 사람에게만 보이는 허공의 꽃과 같아요. 눈병이 나으면 그 허공의 꽃은 사라지고 텅 빈 공성만이 남게 될 것입니다. 허공의 꽃은 변계소집상의 무상성을 나타내는 말인데, 있는 것 같지만 없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의 상(相)으로만 존재합니다.

변계(遍計)는 주관인 능변(能遍)과 객관인 소변(所遍)으로 나뉩니다. 주체와 대상으로 나뉘는 것인데, 능변이란 주관이 분별한다는 의미이고, 소변은 객관이 분별되어진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보는 외부의 사물 역시 능변인 주관에 의해서 오염된 객관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모두는 자기식대로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보는 컵과 다른 사람이 보는 컵은 어느 정도 비슷하기는 하지만 똑같지는 않습니다. 각자가 경험한 주관적인 느낌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의타적인 느낌을 통해서 보기 때문에 컵의 객관적인 모습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식학(唯識學)의 핵심입니다. 우리의 육감(六感)에 의한 육식(六識 : 안식眼識, 이식耳識, 비식鼻識, 설식舌識, 신식身識, 의식意識)은 사물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없으며, 마음의 흔적에 의해서 비틀린 채로 보게 된다는 말입니다. 사실 사물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지금의 현대 양자물리학에서는 비틀린 채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물의 본성이라는 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존재한다는 것은 일종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눈이 없으면 이 컵이 과연 존재할까요? 이 컵이 이런 모습으로 존재하겠습니까? 이 컵을 본 내 느낌은 눈과 컵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현상입니다. 그렇다면 그 느낌이 없을 때는 컵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손으로 컵을 만졌는데 촉각의 느낌이 조금도 없다면 이 컵은 내 손에 촉각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내 눈으로 컵을 봤는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 컵은 나한테 시각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즉 존재한다는 것은 컵과 눈, 컵과 손 사이의 느낌에 의해서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존재는 관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물에 대한 감지가 그 사물에 대한 마음의 흔적인지 그렇지 않으면 사물이 존재하는 방식인지 살펴봐야 합니다. 사물은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감각기관의 반응을 통해서 존재한다는 현상을 보이고 있을 뿐입니다. 변계소집상은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분별된 모든 것들은 서로가 서로를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름이 붙음으로써 일시적인 경계가 영구적인



것이 되고, 생각과 말이 됩니다. 본질을 보기 위해서는 생각과 말을 떠날 필요가 있습니다(離言說相). 그리고 이름을 떠나고(離名字相), 그 다음 감지를 떠납니다(離心緣相). 우리 깨어있기에서도 맨 처음 생각을 떼 내고, 그 다음 이름을 떼고, 감지를 떼어 냅니다. 심연상은 마음에 끌려다가 연실을 매어놓은 상(相)이라는 의미로 '내적 감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심연상을 떠나있다는 것은 마음속의 미묘한 느낌마저 떠나있음을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일심(一心)입니다. 생각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고, 감지를 떠나는 깨어있기의 과정이 이 연설상, 명자상, 심연상을 여의는 과정과 닮아있습니다. 연설-명자-심연의 순서를 보면 이 글을 쓴 마명 역시 그런 단계를 경험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말과 생각과 이름과 감지를 떠나면 드디어 평등(平等), 불변(不變), 불괴(不壞)가 온다고 했습니다. 평등은 만물에 차이가 없다는 말이고, 불변은 변화가 없고, 불괴는 파괴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眞如)입니다.

唯是一心. 故名眞如. 以一切言說, 假名無實, 但隨妄念, 不可得故.  
유시일심. 고명진여. 이일체연설, 가명무실, 단수망념, 불가득고.

이 일심으로 인해서 진여라 이름하니 일체의 말과 생각은 거짓된 이름일 뿐 실체는 없다. 단지 망념을 따른 것이므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연설과 명자와 심연상을 떠나면 일심(一心)으로 돌아갑니다. 파도의 모양을 떠나 물로 돌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파도 저런 파도는 이름이고, '이런 파도가 저런 파도를 만나서 싸워서 이겼다.'하는 것은 생각입니다. 생각을 떠나고 이름을 떠나면 이름 없는 느낌만 남는데 그 느낌마저도 구별된다는 측면에서는 하나의 상(相)입니다. 그 느낌의 상(相)마저 떠나면 지금 이 순간 우리는 일심(一心)속에 있게 됩니다. 일심(一心)은 평등하면서 변하지 않고, 파괴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진여(眞如)입니다. 일체의 말과 생각은 임시적인 이름일 뿐 실체가 없고 망념(妄念)을 따라간 망심(妄心)일 뿐입니다. 이상이 진여의 체(體) 중에서 심진여(心眞如)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음호에 계속)

## 홀로스 공동체 소식

### 1. 9월 깨어있기 마스터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9월 마스터과정은 '감각 발견하기'와 '확장하기'를 공부했습니다. 감각이란 사물을 볼 때 감각적 자극만 있는 상태로, 마음속 경험의 흔적인 감지가 없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어떤 느낌도 분별도 마음에서 느껴지지 않고 비어버린 상태이기에 마음은 고요합니다. 그러나 감각은 살아있어 자극은 계속 들어옵니다. 주의제로에서 시작되는 감각은 마음의 고요, 텅빈 삼매로 가는 시발점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번뇌의 작용을 멈추었기 때문입니다.

또, 느낌과 직관에 강한 사람들을 위한 확장하기 연습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몸의 영역만을 '나'라고 여기기 쉽습니다. 그러나 현대물리학과 생리학에 의하면 몸은 생체전자기장bio-electromagnetic field로 둘러싸여있고, 인체 내에서는 bio-photon이 방사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에너지 장들은 인체 수미터 밖에서도 검출기로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더 미세한 에너지들은 인체밖으로 더 멀리 뻗어나가고 있다는 의미도 됩니다. 마치 에밀레 종의 파동이 미세하게 멀리 멀리 퍼져나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를 통해서도 우리 몸마저도 결코 시각적인 몸의 영역 이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 존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러한 점을 '확장하기'를 통해 느껴보았습니다.



## 2. 9월 20일부터 깨어있기 심화과정이 진행되었습니다.

여나, 아소, 수연님을 비롯해 8명이 참여하여 진행된 이번 과정에서는 경험적 깊이가 있는 분들이 많이 참여하여 더 활기차고 깊은 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 3. 여나님이 오인회 화상모임에 새로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여나님은 현재 대학에서 상담심리를 가르치는 교수이지만 이전에는 정토회 활동도 많이 하고 불교명상협회 창립에도 관여하였으며, 미안마 위파사나 수행도 다녀오는 등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는데 깊은 관심을 가졌던 분입니다. 크게 환영합니다.

## 4. 무지님, 아소님과 매화님이 함양연수원 방문프로그램에 참여하였습니다.

무지님은 심도있는 탐구를 위해 한달간 머물다 갔고, 매화님은 백일학교를 졸업하고 나가 사회에서 생활하면서, 함양에서의 삶이 탐구에 도움이 되는 환경이라는 것을 오히려 더 크게 느끼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소님은 백일학교와 월인님과 생활에 관심이 가서 방문하였다고 합니다. 좋은 시간 되셨기를...(다음 쪽에 후기를 신습니다)

## 5. 백일학교 학생들과 다 함께

지리산 제일문과 서암정사, 벽송사 도인송과 미인송을 보고 왔습니다.



영상 보기

영상링크 바로가기

## 6. 지난 8월 말 백일학교 졸업생들의 방문이 있었습니다.

백일학교 졸업생들이 오랜만에 함양에서 다시 만났습니다. 상림숲을 산책하고 최치원 선생 사당을 방문하며 즐거운 한때를 보냈습니다. 모두 반가웠습니다.



영상링크 바로가기

영상 보기



## 7. 매화님 방문프로그램 후기

### 일상에서의 분주한 마음을 내려놓고 탐구의 방향성을 잡다

- 매화(홀로스 백일학교 졸업생)

백일학교 과정을 마친 후, 함양연수원 생활에 대한 그리움이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주제선정에 대한 방향성을 잡기가 어려웠고, 매일 일기를 쓰는 것도 의지가 필요함을 느꼈습니다. 결국 깨어있기 심화과정을 신청했고, 9월 17일부터 함양연수원에 미리 와서 선생님과 주제모임, 함양연수원 도반님들과 함께 생활을 하였습니다.

함양연수원 방문을 통하여 그동안 공부했던 것들과 제가 잊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상기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함양연수원에서는 주로, 느낌의 바탕에 주의를 두어 주제탐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느낌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이번에는 느낌이 일어날 때 그것을 알게 하는 바탕에 관한 관심으로 이동하면서 예전보다 조금 더 탐구가 내면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주제 선정에 있어서 어떤 식으로 잡아나 가야 하는지 선생님께서 방향을 잡아주셨고, 제가 놓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 깨우쳐주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밖에서는 주제를 잡는 것조차 쉽지 않다고 말씀드렸었는데 꼭 주제에 대한 탐구가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알게 되는 마음에 관한 어떤 불편함, 필요성을 느끼는 것이 분명 있음을 알았고, 마음에 일어나는 수많은 현상들이 주제가 될 수 있음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주제를 정할 때 자신이 가지고 있는 막연한 느낌으로 두리몽실하게 정하기보다는 그 주제에 대한 내용의 구체화, 그 탐구주제를 통하여 무엇을 알고 싶은지를 점점함으로써 주제에 대한 느낌을 명료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가 명확하고 구체적일수록 하루를 살아갈 때 탐구의 방향성이 확고해지고, 통찰을 이끌어낼 수 있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주제를 정할 때 그것을 구체화시켜주시고 그 방향성을 명확하게 해주시는데 그것이 탐구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에서도 주제를 구체화시키는 작업을 반드시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깨어있기 심화 전에 탐구를 하고 들어가니 탐구의 흐름을 타는 느낌이 들었고 심화에서의 과정이 좀 더 집중되고 얻어가는 것들이 더 많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늘 귀한 가르침을 주시는 월인선생님과 따뜻한 마음으로 맞이해주시는 여러 도반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 8. 무지님 방문프로그램 후기

### 일상 속에 신비가 깃들어있음을 느끼는 시간

무지(대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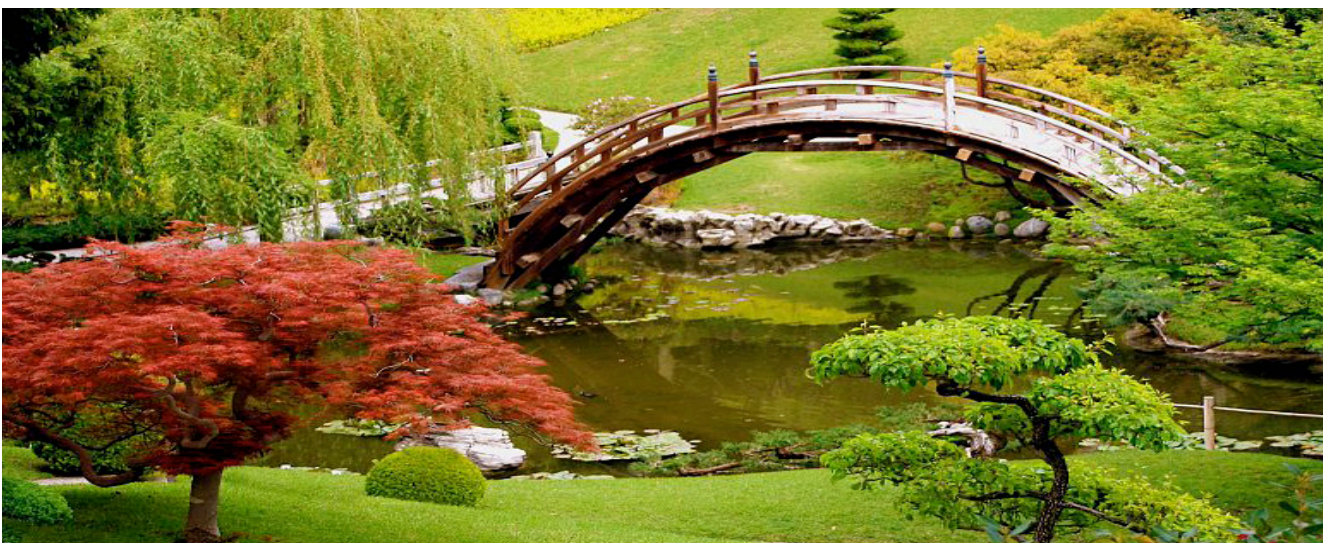
학기 중에 깨어있기 2박 3일 프로그램을 위해 함양에 내려오기도 쉽지는 않지만, 내려오더라도 프로그램만 듣고 이를 정리하고 익히고 체화시키는 시간이 없는 것이 아쉬워 방학을 맞이하여 함양연수원의 방문 프로그램 한달과정을 신청하여 내려오게 되었다. 물론 앞서 백일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밀도 있고 깊이 있는 시간에 대한 경험이 있었고, 작년 이맘때에도 한 달 가까이 시간을 보내본 적이 있기에 가능한 선택이었다. 이 한 달 과정은

백일학교를 짧게 경험하는 느낌도 들었다. 기본적으로 모든 시스템은 백일학교 학생과 공동체학교 학생과 함께 하기 때문이다.

한 달 동안 있으면서 인상적이었던 경험은 내가 나로 산다기보다 그 어떤 힘에 의해 살게 된다는 것을 알았던 시점이었다. 느낌이 일어나는 것을 투명한 주체로 보게 되면, 느낌이 일어나는 자리가 지금 이 자리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렇다면 지금 이 자리에는 무엇이 있는가? 지금 이 자리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하게 된다. 의식적으로 지금 이 자리에 있든지 아니든지 간에 늘 지금 이 자리에 있음을 어렴풋이 느끼게 되고, 우리네 삶이 작은 나 자신의 힘만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님을 느낀 것이다. 알 수 없는 어떤 생명력에 의해 눈을 뜨게 되고, 말을 하게 되고, 움직이며, 탐구를 한다. 나 또는 주체가 저절로 켜져 있게 되어 끄고 싶어도 끌 수가 없다. 끄고 싶어서 끌 수 있다면 불면증이란 것은 없을 테고, 원하면 언제든지 잘 수 있을 테니 말이다. 또한 주체가 있을 때 느끼기 싫어도 느낄 수밖에 없고, 듣고 싶지 않아도 들리고, 보인다. 탐구를 해나갈수록 내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하는 것이 있기는 한 것인지, 이 삶은 누가 사는 것이며 누구의 것인지, 그렇다면 변하지 않는 존재가 있긴 한 건지, 수많은 의문과 변화, 경험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고 살아가게 되는, 무언가 유지되는 것 같은 이 존재는 무엇인지 궁금하게 되었다.

알아갈수록 알 수 없게 되어가고 모르게 되어가는 부분이 드러나며, 신비롭기도 하고, 이런 신비로운 현상을 덮어두고, 혹은 둔해서 발견하지 못하고, 또는 당연시하며 살아가지 않았던가. 삶과 죽음이 여전히 신비이고 미스터리라고 수많은 이들이 생각하고 고심할 텐데, 어찌하여 자신의 일상과 아침에 눈을 뜨는 것과 낮에 이것 저것 하며 보내는 그 순간들에선 신비를 느끼거나 의문을 품지 않는 것일까. 저절로 눈이 떠지고 공부를 하고 있게 되고, 숨을 저절로 쉬며, 알아서 생각, 판단이 떠오르고 '내가 살고 있다'고 여기는 것 자체가 참으로 비논리적이고 신비한 것이며 알 수 없는 의문인 것인데 말이다.

한 달 프로그램은 바로 이렇게 일상 속에 신비가 깃들어있음을 느끼는 시간이었다. 가부좌를 틀고 앉아서 경험하거나, 깊은 연습을 통해서도 경험할 수 있지만, 사소하고 당연하게 여기던 것들에 철저하고 세밀한 주의와 관심이 쏟아질 때 또는 탐구하는 마음을 품고 일상을 살아갈 때, 바로 그런 때에 이미 신비로운 일들이 벌어지고 있음을 알게 된다. 한 달 프로그램이 끝나갈 무렵이 되니 어느새 벌써 한 달이 되었다는 게 실감나지 않았고, 시간이 굉장히 빨리 간 느낌이었다. 그만큼 중요하지 않은 것은 다 잊고 제쳐두고, 탐구에만 오롯이 매진했던 시간이었기에 더욱 그랬던 것 같다. 한 달 동안 직접 살면서 배우고 나니 서울에서도 삶 속에서 작게든 크게든 적용이 되고 체화가 되어 중심을 잃지 않고 탐구를 해나갈 수 있는 힘이 길러졌다. 무엇보다 감사하게 여겨지는 것은 그 기간동안 선생님께서 진심으로 정성을 다해 가르쳐주시고 모임을 함께 해주시고, 곁에서 작은 일 하나에서도 배울 수 있도록 깊이 있게 안내해주신 것이다. 살면서 그 어떤 선생님, 스승님보다도 가까이서 깊이 있게 가르쳐주셔서 깊은 감사를 느낀다. 다음에도 기회가 되면 충분히 시간을 내어 내려가서 공부하는 시간을 가질 것이다.



## 강의 · 도서 구입 안내


### 1. 영상강의 데이터 목록

영상강의는 USB 메모리에 넣어 제공되며 1강의당 3,000원입니다. 아래 구분은 편의상 한 것으로, 영상강의 데이터는 원하시는 순서, 시간만큼 요청하시는 대로 구입할 수 있습니다.

	제목	구분	강의	가격	비고
1	진심직설	전체	총 48강	144,000원	2014.10.28 -2015.6.2
		1강-12강	각 12강	각 36,000원	
		13강-24강			
		25강-36강 37강-48강			
2	조론	전체	총 52강	156,000원	2017.4.4 -2018.5.15
		1강-13강	각 13강	각 39,000원	
		14강-26강			
		27강-39강 40강-52강			

- 영상강의 원본은 용량이 크기 때문에 사무실에서 직접 담아가시거나, 외장하드를 보내주시면 저장해서 다시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원본과 용량을 줄인 동영상의 가격은 같습니다.)
- 700메가로 줄인 영상강의는 이메일이나 32기가 USB(40시간 정도 수록, 별도 1만원)에 담아서 보내드립니다.

### 2. 도서 안내

구분	제목	가격
필독 도서	깨어있기™ - 의식의 대해부	12,000원
	관성을 넘어가기™ - 감정의 대해부	10,000원
추천도서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上권	25,000원
	대승, 현상과 본질을 뛰어넘다 中권	25,000원
	주역, 심층의식으로의 대항해 (만화)	10,000원
	죽음 속에도 봄이 넘쳐나네	8,000원
	푸른 빈 배 (eBook)	 7,000원

#### ◆ 구입문의 ◆

- 입금계좌 : 농협 053-12-130081 이원규
- 문의 02-747-2261

- 홈페이지, 문자, 전화, 이메일을 이용해 주문하시면 됩니다.
- 주문하실 때는 주소, 휴대폰 번호, 성함을 알려주십시오.
- 배송료 2,500원(제주도 5,500원)을 합산해 입금해주시시오. (주문금액 10만원 이상은 배송비 무료)